

金陵集字考

尹炳泰*

- | | |
|-----------------|----------------------|
| I. 머리에 | II. 諸家見解의 總括 |
| III. 活字의 造成과 材料 | IV. 活字의 字本, 字面 및 印本들 |
| V. 活字名 | VI. 끝으로 |

I. 머리에

이 글은 증전에 聚珍字라고 불리었던 活字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새로 쓴 글이다. 이 活字에 대해서는 聚珍字라는 명칭으로 先學에 의하여 대개 언급되었다. 그 중에서도 前間恭作¹⁾·金元龍²⁾·金斗鍾³⁾·李聖儀⁴⁾·白麟⁵⁾·千惠鳳⁶⁾·孫寶基⁷⁾ 여러분이言及한 이 活字에 대한 見

1) 前間恭作 述, 朝鮮의 板本 (福岡: 松浦書店, 昭和 12(1937), pp.52~53, “甲四 聚珍字,” pp.183~184.

2) ㄱ. 金元龍, 韓國古活字概要 (서울: 乙酉文化社, 1954), pp.21 및 35 및 圖版 二〇A(國立博物館叢書 甲 第一).

ㄴ. 金元龍, “李朝後期の 鑄字印刷,” 郷土서울, 第7號, (1959.12.), pp.48~50.

3) 金斗鍾, “近世朝鮮後期活字印本에 關한 綜合的 考察,” 大東文化研究, 第4輯, (1967.7.), pp.42~43, “十. 聚珍字.”

4) 李聖儀, 韓國古活字冊書目 (私家版, 1965. 油印本), pp.80~81.

5) 白麟, “朝鮮後期活字本の 形態書誌學的研究(下),” 韓國史研究, 4, (1969.6.), pp.143~144, “19. 聚珍字.”

6)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下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p. 111. (韓國圖書館叢書, 14-2)

7) 손보기, 한국의 고활자 (서울: 한국도서관학회, 1971), pp.128~129, “40 聚珍字本.”

* 忠南大 文獻情報學科副教授 書誌學專攻

解에 대하여. 筆者는 그 見解들을 밝힌 일이 있다.⁸⁾ 同時에 ‘聚珍字’라는 字名의 不適當함을 論하였다. 그 後 千惠鳳⁹⁾과 손보기¹⁰⁾는 前說에 대하여 약간의 修正을 加한 內容을 著書에서 言及한 일이 있다.

II. 諸家見解의 總括

앞의 先學들의 의견을 종합 요약한 것이 아래 表1 이다.

言及者 事項	前問恭作	金元龍	金斗鍾	李聖儀	白麟	千惠鳳	孫寶基
字名	聚珍字	聚珍字· 箕營木字	聚珍字	聚珍木 活字	聚珍字	聚珍字	聚珍字
字體	筆書體		筆書體		筆書體		
字本			錢牧齋先生 初學集字				初學集
名稱의 由來	南公徹 文集		金陵居士 集題顏		保晚齋集 跋文		
活字의 材料	鑄字	銅	鑄字	木	鑄字	銅	木·쇠
만든사람	南公徹		南公徹	中國改燧	南公徹		
만든時期	1814頃				1815	1815頃	1815以前
使用期間	1838 까지	約 40 年刊					
最初印本	金陵集	金陵 居士集	金陵集	南公徹 文集	金陵集		
最終印本	保晚齋集	保晚齋集	保晚齋集		保晚齋集		
其他(用紙· 幀 등)	唐紙· 唐裝		唐本模倣				中國式

8) 尹炳泰, “浮碧樓重修記와 같은 活字 印本들,” 圖書館學, 第三輯, (1973.12.), pp.47~82, 125.

9)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서울:韓國圖書館學研究會, 1976), pp.101~102.

10) 손보기, 새판 한국의 고활자 (서울:寶晉齋, 1982), pp.111~112, 386, 430

앞의 表에서의 要約과 千惠鳳·손보기 두분이 修整한 內容들을 總括 要約하여 보면,

- ① 字名을 李聖儀는 聚珍木活字, 千惠鳳(ㄴ)은 聚珍筆書體字, 孫寶基(ㄴ)은 奎章閣字라 한 것 以外의 사람들은 모두 聚珍字라 부르고 있다.
- ② 書體는 筆書體이고,
- ③ 字本은 武英殿聚珍版 또는 錢牧齋初學集을 두고 있으며,
- ④ 名稱의 由來는 <金陵集>의 標題面이나 <保晚齋集>의 跋文을 들고 있다.
- ⑤ 活字의 材料로는 李聖儀·千惠鳳(ㄴ)·손보기(ㄴ) 세분은 木, 다른 사람들은 金屬인 鑄字·銅·놋쇠 등을 들고 있으며, 그 根據의 하나로 <金陵集>標題面의 傍書를 들고 있다.
- ⑥ 그 活字를 만든 사람에 대하여 李聖儀를 除外하고, 言及했던 사람들은 모두 南公轍의 私鑄로 생각하고 있고,
- ⑦ 活字가 만들어진 時期는 대체로 1815年頃으로,
- ⑧ 그 最初 印本은 南公轍의 金陵集이며,
- ⑨ 그 最終 印本은 保晚齋集이고,
- ⑩ 使用期間은 대체로 1838年 까지로 보고 있다.
- ⑪ 이 活字의 現存 與否와 行方에 대하여는 아무도 言及치 않았고,
- ⑫ 이 活字로 찍은 책들은 用紙부터 裝幀에 이르기까지 唐本 그대로를 模倣하고 있음을 言及하고 있다.

III. 活字의 造成과 材料

以上에서 言及한 사항들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므로 大體로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筆者의 의견과 맞지 않거나, 筆者의 論文發表 이후에 修正한 部分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종합한다는 의미에서도 아래에 정리하여 본다.

이 活字를 造成한 時期를 이 活字로 印刷한 가장 이른 책인<金陵集>의 印出年度인 純祖 15年乙亥(1815)로 보고 있는 것은 대체로 같은 의

건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活字를 만들게 한 것은 <金陵集>의 저자인 南公轍이라고 대체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時期나 造成者에 대한 正確한 根據文獻은 아직 나타나지않고 있다. 그러나 南公轍의 傳記와 有關한 자료를 더듬어 보면 어떤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南公轍은 그가 지은 <宜陽子年譜>에 의하면 英祖36年庚辰(1760) 11月 16日에 서울 明禮坊에서 南有容의 次男으로 태어났다. 그의 活字印刷와 有關한 經歷으로는 33歲가 되는 正祖16年壬子(1792) 正月에 奎章閣 直閣兼校書館校理를 拜한 것과, 51歲가 되는 純祖 10年 庚午(1810) 4月에 奎章閣 提學兼校書館提調를 拜한 것이다.¹¹⁾ (實錄)에 의하면 憲宗6年 庚子(1840) 12月丙戌에 81歲에 卒하였다.¹²⁾ 이러한 經歷을 통하여 보면, 두 번에 걸친 校書館의 職分은 그가 이 活字를 만들도록 하는데 충분한 經驗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活字를 만든 時期는 先學의 意見과 마찬가지로, <金陵集>의 印痕의 확인을 통해서 보아도 純祖 15年(1815)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나 이 時期는 南公轍이라는 이 活字 造成의 時期는 대체로 맞지않을까 생각한다.

이 活字의 材料를 筆者의 論文이 발표되기 전에는 李聖儀를 除外하고는 모두 鑄字 또는 金屬인 銅으로 말하고 있었다. 먼저 鑄字說을 든 분들이 根據로 한 資料는 <金陵集>의 標題面上에 있는 傍書의 印出記를 들고 있다. (圖1參照)이 傍書에는 “居士集 舊有 爾雅堂本 玉磬山房本 西京本 凡三集 歲乙亥以鑄字開印 剛繫就約 以西京本爲準爲二十四編 印後著作 當以續薰繼刊 付于卷尾”라는 글이 있으며 그 속에 “鑄字”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鑄字라는 金屬活字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活字를 사용하여 印出한 모든 책의 印痕을 보면 木活字라는 느낌이 든다. 千惠鳳에 의하면 木活字의 特徵으로서

11) 南公轍, 歸恩堂集 (1834. 活字本), 卷末 “宜陽子年譜.”

12) 實錄, 48, p.481 上左, 憲宗 6年庚子 12月 丙戌, “…南公轍 卒 …年八十一 諡文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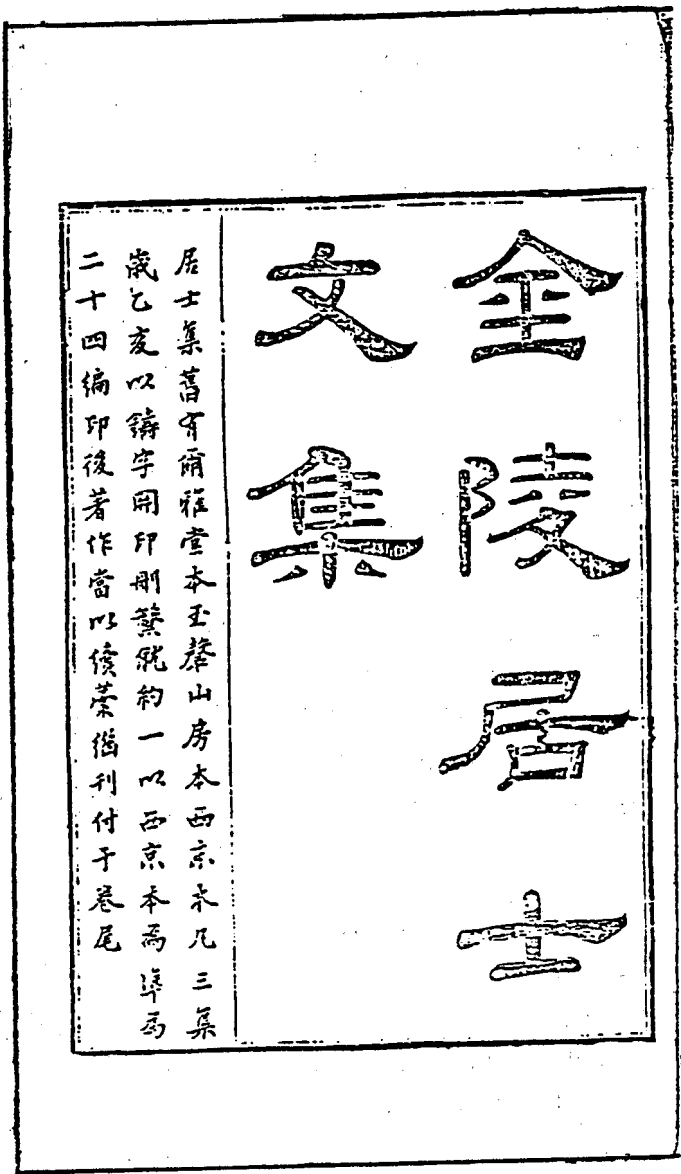


圖 1. 金陵集，標題面。

㉠ “字劃의 시작과 끝에 刀刻의 흔적이 나타난다.” 하였는데, 이들 所謂 “聚珍字”로 印出한 冊의 印文은 한 字 한 字가 例外없이 刀刻의 흔적이 있다.

㉡ “刀刻의 粗拙과 失手로 字劃의 一部가 缺되고 끊긴 것이 보이며, 또한 劃의 太細가 極端의 이다”고 하였는데 이들 印本 역시 이에 符合된다.

㉢ “字樣이 不整하고 크기가 고르지 않다”는 것도 이들 印本에 알맞다.

㉣ “한 版面에 비슷한 字樣이 發見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책 역시 가장 改良되었을 近世의 活字인데 不拘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之, 以, 人, 上, 下, 而, 日, 月,” 등의 글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글자들은 한 字 한 字 대조하여도 비슷한 字樣이 發見되지 않는다.

㉤ “먹물이 덜 묻은 곳에서 字劃이 자주 가늘게 끊긴 것이 보인다”¹³⁾는 것으로 맞추어 보면, 역시 이들 印本에도 적용된다.

한편 孫寶基의 方法에 따라 鑄字가 아닌 點을 본다면

㉠ “木活字本은 肉眼에서도 알아 볼 수 있지만, 寫眞 또는 顯微鏡으로 擴大하면 나무의 木理가 보인다”고 했는데, 이들 印本의 글자들은 例外없이 肉眼으로나 擴大해보나간에 木理가 보인다.

㉡ 鑄字本은 擴大의 의해 보이는 斑點이 글자의 변두리에 特別히 甚하며, 골고루 斑點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 活字의 印本은 그렇지 못하다.

㉢ “木活字本은 擴大해 보면 한 字 한 字에서는 먹물이 고루 퍼져있다” 하였는데, 이 活字의 印本들은 이에 符合된다.

㉣ “鑄字本은 너덜이가 자주 發見되며, 그것은 立體顯微鏡에 의하면 壓印한 자욱이 있으며, 墨痕과 같은 平面感은 없다”고 하였는데, 이들 印本은 거의 너덜이가 없으며, 墨痕의 重印의 경우와 같이 나타나는 것

13) 千惠鳳, “古文眞寶大全에 대하여,” 1973年11月 歷史學會 月例會 發表要旨, 油印物.

이 있으나 立體感은 없고 平面感뿐이다.

⑩ “鑄字本에서는 斑點이 連續되면 木理처럼 보이나 立體顯微鏡으로 보면 그것이 斑點의 連續이며, 壓印한 깊이가 있고, 또는 줄질한 자욱도 確認된다”¹⁴⁾

하였는데 이들 印本の 木理部分을 調査해보니 맞지 않는다.

위와 같은 두분의 方法에 의해 檢討해 보니 所謂 “聚珍字”라는 活字로 印出한 책들은 金屬으로된 鑄字에 의해 찍은 것이 아니며, 木活字로 찍은 책이 分明하다. 또 같은 字를 多造順으로 集字하여 보아도 木活字와 같은 느낌이 든다. 따라서 이 活字는 金屬을 材料로 한 鑄字라기 보다는 나무를 材料로 한 木鑄字 즉 木活字로 생각된다.

IV. 活字의 字本, 字面 및 印本들

이 活字의 字本을 金斗鍾은 “錢牧齋初學集을 字本으로 鑄造하였다.”¹⁵⁾고 말하였으며 이를 따른 사람도 있다.¹⁶⁾ 《牧齋初學集》은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本에 남아 있다.¹⁷⁾(圖2 參照) 實查했던 바 이책 역시 金斗鍾이 본 冊과 같은 刊本이며 半行半楷의 筆書體로서, 이 活字의 字體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若干 다르다. 그런데 徐命膺의 著作인 《保晚齋叢書》의 稿本이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에 傳存하고 있다.¹⁸⁾(請求記號 E2-A1) 이 책의 前半部의 글씨體 또한 이 活字의 글씨體와 너무나 닮았다.(圖3參照) 이 稿本の 글씨는 徐命膺의 親筆이 아니면 그의 아들 徐浩修나 徐潛修, 아니면 그의 孫子인 徐有本이나 徐有渠의 글씨가 아닌

14) 이 方法은 孫寶基 博士의 가르침을 筆者가 정리한 것이다.

15) 金斗鍾, 前揭書, p.42.

16) 房兆楹, “鑄字銷談,” 書誌, 第一卷第二號, (1960.8), pp.28~29, “…至所謂聚珍版字, 如見於徐命寶保晚齋集, 南公輟歸恩堂集者, 依余所知, 蓋即以錢謙益所著之初學集字體爲字本者也…”

17) 牧齋初學集 (中國木板本).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 (DIB16)

18) 徐命膺 讓, 保晚齋叢書 (稿本). 60券 31冊.

가 생각된다. 이런 書體의 類似性으로 볼 때 이 活字의 字本은 <牧齋初學集>이라기 보다는, 當時의 淸나라의 글씨를 본 만(?) 우리나라 사람의 글씨, 특히 徐氏一家의 글씨를 字本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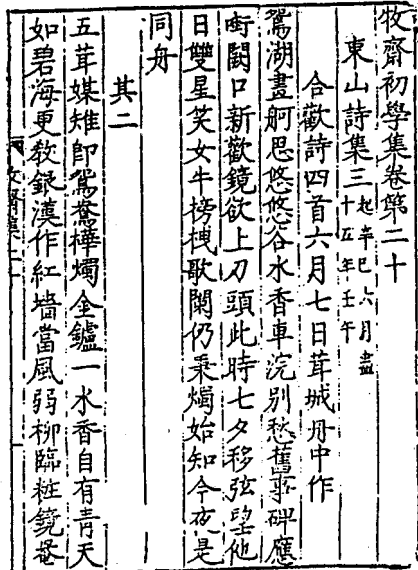


圖 2. 牧齋初學集卷第二十, 第1版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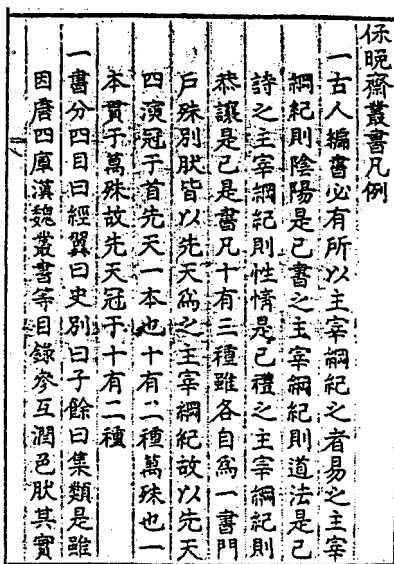


圖 3. 保晚齋叢書, 凡例, 第1版 앞면.

이 活字는 현재 中字와 小字의 두가지만 찾아내었다. 그 中 中字는 폭이 15mm 內外 높이가 10mm 內外의 크기이고, (圖4 參照) 小字는 폭이 7mm 內外 높이가 8mm 內外 크기의 活字이다. (圖5 參照) 이 活字의 小字로만 찍은 책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여러 藏書目錄에서 <圭齋詩鈔> 와 <晚香齋詩鈔>를 이 活字의 小字로만 찍었다고 하였기에, 마침 忠南大學校圖書館에 이 두가지 책이 있어 다시 實查하여 보니 두가지 다 整理字의 小字도 아니고 이 活字의 小字도 아닌 敦岩印書體字의 小字로 印出하였음을 확인하였다. 小字도 많이 使用된 것이 아니고 間或 中字의 注로 쓴 경우 조차도 드물며, <金陵集> 끝에 있는 <譜圖>의 注에 集

之	之	之	之	乙	乙	乙
而	而	而	而	有	有	有
也	也	也	見	已	比	既
以	以	以	以	出	出	地
不	不	不	不	不	年	年
其	其	其	武	文	天	命
於	於	於	於	乎	乎	乎
臣	臣	臣	臣	人	人	人
則	則	則	則	則	明	明
矣	矣	矣	為	為	為	為
此	此	此	心	心	必	必
所	所	所	世	世	今	今
民	民	民	民	民	將	哉

圖 4. 金陵集字. 中字. 集字圖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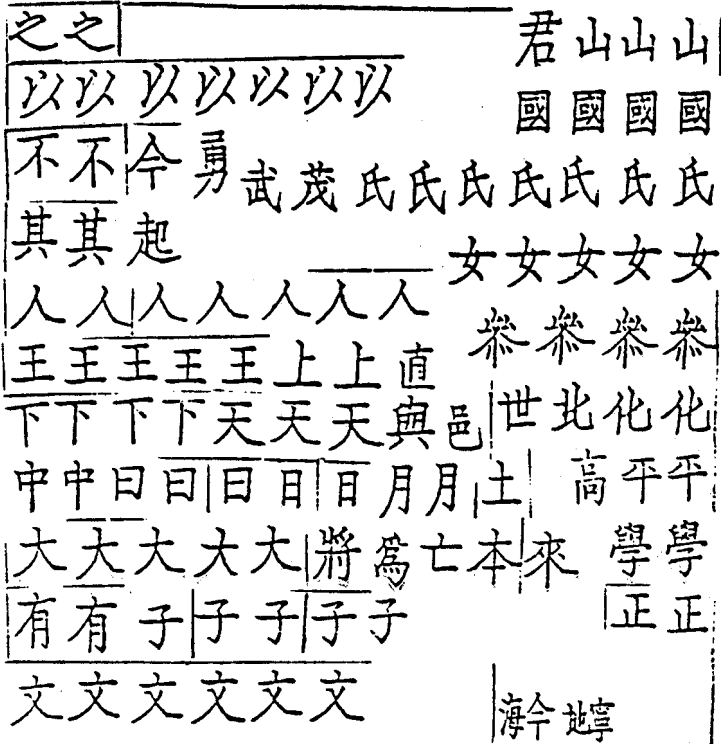


圖5. 金陵集字. 小字. 集字圖 (1:1)

中的으로 많이 使用한 것을 보았을 뿐이다.

이 活字로 印出한 印本은 純祖 15年(1815)에 印出한 <金陵集>을 包含하여 모두 6種만 찾아 내었다.(表2 參照)

이 種數는 孫寶基의 最終 整理分과 꼭 같다. 이 活字로 印出한 가장 늦은 時期의 책은 <保晚齋集>이다. 그 印出時期는 憲宗 4年(1838) 9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活字의 使用期間은 24年間이며, 그以後의 印本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活字의 行方도 알 길이 없다. 이 活字로 積은 책은 實查한 것中 모두가 銀粉唐紙에다 인쇄하였다. <雨念

金陵集卷之一

賦

琴賦

每神農之上世削桐爲琴過絲爲絃下方法地上圓
 象天覽五行而合作取六律而諧和心得之而應手
 聲動之而被訝凡人之權愉和伏與夫憂愁不平音
 罵怨嗟各引類而王發在聽者之如何若夫按五絃
 於南風會君臣而合歡此聽和聽也拘於美里七作
 履霜此聽憂聽也游杏壇而按調臥陋巷而奏曲此

宜亭 南公轍 元平 著

齋詩鈔나 <保晚齋集> 역시 楮紙에다 적은 完本도 있다. 銀粉唐紙로 적은 책을 보면, 表紙도 얇은 色唐紙로 中國 清大의 裝訂을 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책의 다른 특징으로는 版面에서도 나타나니 版口에 黑口을 한 것이 많다던가, 또 6種의 印本 全部 上黑魚尾로 되어 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點들을 볼 때, 매우 慕華的인 印刷物들이라 말할 수 있겠다.

表2 金陵集字 印出本一覽

番號	印出年月	그 根據	書 名	著作者	內容	券冊數	半匡크기 (cm)	行字數	版口	魚尾	調查物所藏處
1	1815	印出記 (標題面)	金陵集	南公做	文集	24券14冊	22.0×15.2	10	20	黑口 上黑	忠南大, 奎章閣 (圖6 參照)
2	1816	印出記	海東名將傳	洪良浩	叢傳	6券 3冊	22.2×15.0	10	20		高大B12-A452
3	1832.9.	序	海居齋詩鈔	洪顯周	文集	3券 4冊	20.3×13.8	10	20	黑口	高大D1-A908
4	1832.秋	印出記	兩念齋詩鈔	李鳳煥		10券 4冊	22.0×13.8	9	19		國, 藏, 서울大
5	1834.5.	自錄	歸恩堂集	南公做		10券 6冊	20.9×14.0	9	19		忠南大, 高大華由
6	1838.9.	跋	保晚齋集	徐命廣		16券 8冊	21.9×14.9	10	20	白口	忠南大, 高大

V, 活字名

앞의 表1에 의하면 先學들은 이 活字의 名稱을 '聚珍字'로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聚珍字'라는 名稱이 적당한가 하는 것을 檢討해야

한다. 從前에 ‘聚珍字’라고 부르게 된 根據로서 <金陵集>의 標題面에 있는 ‘聚珍板本’이나, <保晚齋集>의 跋에 있는 “(略) 丁未編定本用聚珍字擺印 敬摹宣賜 (略)”¹⁹⁾에서 ‘聚珍字’를 擇하여서 使用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 名稱은 절대로 固有名稱으로 使用하였다기 보담은 木活字 全般에 共通되는 通常名稱으로 使用되었다는 것이 알맞는 말인 것이다. 원래 이 ‘聚珍字’라는 名稱은 淸에서 乾隆年間に 武英殿에서 活字를 만들어서 印刷할 때에 活字版에 주어진 이름인 것이다. 淸에서는 1776年 頃に 이 活字版式에 관한 책을 간행하였으니 그 이름은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이다.²⁰⁾ 이 책은 국내에도 여러 벌이 들여와 지금은 奎章閣을 비롯한 여러 곳에 소장하고 있다. 그중 奎章閣 所藏本은 武英殿聚珍字로 인쇄한 책이며 全1冊 (34張)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으니 徐有渠는 <林園十六志>에 그 一部를 要約하여 採錄하였으며,²¹⁾ 文一平은 <湖岩全集>에서 이를 언급하였고,²²⁾ 韓泰錫도 <出版學>에다 天理圖書館의 金子和正가 <ピブリア>에 全譯한 것²³⁾을 다시 抄譯하여 紹介한 바 있다.²⁴⁾ 그 內容을 보면 全17個項으로 豊富한 插圖로서 說明이 되어 있다.

이 책의 “一御製”에서 聚珍이라 賜명한 事實이 쓰여 있으며, 卷末에

19) 木活字本. 16券 8冊. (高麗大學校中央大書館藏 DI-A165). 徐有榮의 跋.

20)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 金簡, 等受命編 (乾隆 41(1776)跋. 中國木活字本). 1冊 (34張). 奎章閣藏 (支5407).

21) ㄱ. 徐有渠, 林園十六志, 百五: 怡雲志券第七 圖書藏訪下, 第6~13張, “聚珍版式.”

ㄴ. 서울大學校古典刊行會, 1969. 影印本. (서울大學校古典書, 第9輯) 第六券, pp. 389~392.

22) 文一平, “金簡과 金屬活字,” 湖岩全集 第二券 (文化·風俗編) 一文化的發掘 一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昭和14(1939), pp. 38~41.

23)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 翻譯: 金子和正, ピブリア, No. 23: 富永先生華甲記念古版書誌論叢 (1962.10), pp. 409~434. 圖.

24) 韓泰錫, “四庫全書의 活字印刷經緯—〈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을 中心으로,” 出版學, 第12輯, (1972.6.), pp. 31~36.

“乾隆四十一年(1776)十二月”字의 四庫全書副總裁 金簡의 記가 붙어있다. 이 記를 쓴 金簡이 우리 나라 사람의 後孫인 것은 文一平씨가 이미 言及²⁵⁾하였기에 省略하거니와, 우리 나라 活字鑄成이나 刻成 그리고 管理·印書의 技術이 中國으로 傳播되었다가 다시 그 改良된 技術이 우리 나라에 逆導入된 것은 오직 이 聚珍版式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逆導入된 木活字의 刻成이나 管理·印書의 技術은 늦어도 正祖 13年(1789) 즉 聚珍版式이 이루어진 13年後에 奎章外閣(校書館)에 到着한 것이니, 이는 다시 後에 言及하는 <李氏三世忠孝錄>의 標題面에 ‘聖上己酉外閣聚珍’이라 한 것을 보면 짐작이 간다. 그리고 <實錄>의 正祖 20年 丙辰(1796) 3月의 記事에 보면

癸亥 整理鑄字成 教曰 (略) 壬子命倣中國四庫書聚珍版式 取字典字本 木用黃楊 刻成大小三十二萬館字 名曰生字 (略)²⁶⁾

라 하였으므로, 生字의 刻成은 完全히 聚珍版式에 의하여 된 것임을 알 수 있고, 生字를 字本으로 한 整理字 그리고 改鑄整理字의 重要的 印本의 卷末에도 붙어 있어 쉽사리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聚珍字’라는 名稱이 不適當한가를 檢討해 보자, 그럴려면 于先 史料와 實物에 나타나는 事實을 調査하여야 하니 聚珍字와 關係되는 記事를 추려서 對照하면서 檢討할 必要가 생긴다. <韓國書誌年表> 1789(乙酉)正祖 13년에 보면 “*外閣에서 聚珍字로 李氏三世忠孝錄을 印出하다. (同書 標題面·序·跋 (略))²⁷⁾”라고 있다. 이에 의하면 <李氏三世忠孝錄>²⁸⁾에 “聖上己酉外閣聚珍. (同)”이라 되어 있고, 乙酉年이 序의 上之十三年(1789)年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實物을 實查해보면 後期芸閣印書體字로 印出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年表 1791(辛亥)正祖

25) 文一平, 前掲書.

26) 實錄, 46, p.637 上左·上右, 正祖 20年 3月 癸亥條.

27)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p.120.

28) 活字本. 1冊.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 B12-A295)

15년에 보면 “*內閣에서 校正한 五山集을 箕營에서 聚珍字로 活印하다.(同書 印出記, 跋(略))²⁹⁾”라 있다. 이는 <五山集>³⁰⁾의 表題紙 兩面に 印出記가 “內閣校正 箕營活印”으로 되어 있는 것과 그 跋文에 “(略) 倣中國聚珍堂活字印進(略) 上之十五年洪良浩 跋”에서 나온 것이니, 이 책은 先學들에 의해 所謂 “箕營木活字”라 불리우는 즉 五山集字라는 木活字로 印出된 책이다. 또 같은 <韓國書誌年表>를 보면 正祖16年(1792)에 보면 “* 芸館에서 華城傳寶의 <花原勳節錄>을 聚珍字로 印出하다.(同書 表題面·序(略))³¹⁾”로 나와 있다.

이 <花原勳節錄>³²⁾은 그 表題面に “華城傳寶. 勳節錄. 芸館聚珍”이라 있고, 「上之郎阡十六年壬子(1792)」에 朴南岳이 序를 쓴 冊이며, 後期芸閣印書體字로 印出된 책이다. 또 같은 年表 正祖18年(1794)에 보면 “9月 24日 人瑞錄 完成함.(略) 新雕 聚珍版으로 印刊케 함.”³³⁾이라 하였고 그 내용을 <實錄>에서 찾아 보면 “戊申 人瑞錄成(略) 彙爲一書以 新雕聚珍板印布壽傳 至是工告完(略)”³⁴⁾으로 나와 있다. 아<御定人瑞錄>³⁵⁾의 標題面에는 “字典書體.(同) 甲寅初人”이라 있다. 甲寅은 곧 卷首의 御製에 「(略) 踐阡之十有九年甲寅也(略)」로 되어 있는 正祖18年이며, <弘齊全書>에는 그 자세한 解題와 親撰序 全文이 실려있고, 또 “編既成以 生生字印頒”³⁶⁾이라고 活字名을 分明히 表示하고 있다. 그 實物을 보면 틀림없는 生生字本이며 卷末에는 鑄字事實까지 있다.

같은 年表를 보면 純祖 24年甲申(1824)에 “7月. 是月 五車觀의 永嘉

29) 注27 同書, p.121.

30) 木活字本. 8卷 4冊. (奎章閣藏 奎2822, 등)

31) 注27 同書, p.122.

32) 活字本. 3卷 1冊. (奎章閣藏 奎5145, 등)

33) 注27 同書, p.123.

34) 實錄, 41, 正祖 18年 9月戊申條.

35) 活字本. 4卷 2冊. 奎章閣藏(奎2832, 등)

36) 1. 正祖 讓, 弘齊全書(活字本) 卷百八十 群書標記一 御定二(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 貴 D1-A532)

2. 群書標記(서울, 學文閣, 1870. 影印本), pp.107~113.

三怡集이 聚珍字로 印出되다.(同書 標題面(略))³⁷⁾이라 있으니 <永嘉三怡集>의 標題面に “甲申孟穉 五車權聚珍”으로 나와 있고 또 序文이 있다.³⁸⁾ 이 책은 敦岩印書體字로 印出되어 있다. 또 年表 純祖34年(1834)度を 보면 “3月. 是月 聚珍字로 種籍譜를 擺印하여 廣布하다.(同書序畧)³⁹⁾로 나와 있다. 이 <種籍譜>의 序에 의하면 “(略) 余爲是(略) 彙類編纂 用聚珍字擺印廣布(略) 上之三十四年甲年李春 湖南巡察使徐有 渠書于觀風軒中”⁴⁰⁾이라 하였으니, 이 책은 湖南에서 찍은 책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 책을 찍은 活字는 印書體에 가까운 木活字로서 完營印書體字이다. 마지막으로 所謂 ‘聚珍字’로 印出된 책이 <韓國書誌年表>에 나타나는 것이 純祖34年(1834)이다. 이 年度條에 보면 “*是 南公轍이 玉磬山房에서 重訂한 歸恩堂集을 聚珍字로 印出하다. (同書 標題面, 年表)”⁴¹⁾라고 있다. 이 <歸恩堂集>과 年表에 收錄치 못한 <保晚齋集>의 2種에만 ‘聚珍字’로 찍은 記錄이 分明히 남아 있다. 以上 장황하게 說明한 것들을 整理해 보면 아래 表 3과 같다.

이 表 3에 의해 採錄된 全9種中에서 그 名稱使用의 頻度を 對比해 보면

㉞ 聚珍만으로서의 對 2 : 7(아닌 活字)

㉟ 聚珍板으로서의 對 1 : 2(아닌 活字)

㊱ 聚珍字로의 對 1 : 1(아닌 活字)

와 같다. 그 以外에도 出版地와 印出活字別의 對比도 可能하지만 採錄한 數가 적으므로 省略한다. 이 對比 結果는 調查되지 아니한 책속에서 所謂 ‘聚珍字’로 찍히지 아니한 數字는 이 活字로 찍은 冊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망이 크다. 이렇게 統計的인 數字에서 나온 結論은 “聚珍字”라는 名稱은 活字本의 通常名稱으로서의 可能性이 큰 것이며, 그 中에

37) 注27 同書, p.113.

38) 活字本, 1冊.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 신암 D2-A252)

39) 注27 同書, p.135.

40) 木活字本, 1冊.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 C5-A8)

41) 注27 同書, p.135.

表3 '聚珍字'名 關係年度

印出年度	書名	表示方法	表示部分	印出處	使用活字
1977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				中國武英殿聚珍字
1989	李氏三世忠孝錄	聚珍	標題面	外閣	後期芸閣印書體字
1791	五山集	聚珍堂活字	跋	箕營	五山集字
1792	聚珍字譜	聚珍字	日省錄·承氣		(未詳)
1792	花原勳節錄	聚珍	標題面	芸館	後期芸閣印書體字
1794	御定人瑞錄	聚珍板	實錄	鑄字所	生生字
1796	(生生字·整理字鑄字事實) 聚珍板式實錄·各冊末 生生字·整理字				
1824	永嘉三怡集	聚珍	標題面	五車觀	敦岩印書體字
1834	極籍譜	聚珍字	序	完營	完營印書體字
1834	歸恩堂集	聚珍板本	標題面	玉磬山	所謂“聚珍字”
1838	保晚齋集	聚珍字	跋	房	

서도 <武英殿聚珍版程式>에서 보듯이 木活字를 指稱하는 것이 더 妥當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從來에 '聚珍字'라고 불렀던 活字의 名稱은 不適當하게 되었다. 그래서 筆者는 이 活字의 名稱을 '倣聚珍版式筆書體木活字'라 고쳐 부르기를 提案한 바 있다. 그 理由로, ㉠ 干支만을 붙인 字名은 判別과 혼동의 우려가 있으며, ㉡ 이 活字의 造成處는 平壤으로 斷定하기는 아직 資料가 充分지 않으므로 地名이나 機關名을 붙일 수 없고, ㉢ 從前부터 “聚珍字”로 불려 왔으며, ㉣ 그것은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의 方法을 導入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 字體가 半行半楷의 ㉥ 木活字인 까닭임을 들었다.⁴²⁾ 이에 대하여 千惠鳳은 <韓國古印刷

42) 注8 同論文, pp.72~79.

史》에서 “聚珍筆書體字”라는 名稱으로 바뀌불고 있다.⁴³⁾ 아마도 筆者의 名稱이 길기때문에 줄여 부르기로 한 것 같다. 한편 孫寶基는 《새판 한국의 고찰자》에서 이 活字의 名稱을 “奎章閣字”라고 고쳐 불고 있다.⁴⁴⁾ 이렇게 活字名의 異見이 많을 경우에는 活字의 名稱을 그 初印本の 書名을 붙이는 쪽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는 ‘金陵集字’라고 부르기로 한다.

VI. 끝으로

이상에서는 金陵集字에 대한 여러 先學의 見解를 總括한 다음 이 活字의 ① 造成, ② 材料, ③ 字本, ④ 字面, ⑤ 印本들 그리고 ⑥ 活字名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폈다. 앞의 ①~③과 ⑤에 대해서는 先學의 의견과 대체로 일치하나 그 근거를 밝혔다. 이 글에서는 이 活字에 대한 字面分析을 행하였고 活字名을 “金陵集字”로 바꾸어 부를 것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3) 注9 同書, p.101.

44) 注10同書, p.112.